유통기한 친구

점심시간 식당 앞은 늘 소란스럽다. 어깨 너머로 엑스드로 오빠들 노래 소리가 들렸다. 그 속에 반가운 예지 목소리도 섞여 있었다. 나는 작은 소리로 흥얼흥얼 노래를 따라했다. 비스듬히 몸을 돌려 예지를 슬쩍 봤다. 예지랑 눈이 딱 마주쳤다. 예지는 나를 못 본 듯 노래만 계속 불렀다. 나는 슬그머니 고개를 돌렸다. 특별히 뭘 기대한 건 아니다. 어차피 예지는 지난 주 도우미다. 내 차례가 되어 식탁으로 걸어갔다. 등 뒤에서 나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김유리 밥 안 먹어?"

이번 주 도우미 정다정이다. 식당에서 식판을 가져다주는 건 도우미 역할이다. 나는 오른손과 오른다리가 불편하다. 오른다리가 바깥으로 틀어져서 걸을 때 뒤뚱거린다. 아이들이 가끔 내 뒤에서 '오리 유리'라고 놀린다. 나는 정다정 말을 못들은 척 계속 걸었다. 정다정은 더 큰소리로 나를 불렀다.

"유리야, 밥 먹어야지!"

의사선생님이 요즘 들어 다리가 더 틀어진 거 같다고 했다. 그래서 걸을 때 잔뜩 신경이 쓰였다. 아이들이 실룩거리는 내 엉덩이를 보는 게 싫다. 나는 더 빨리 걸었다. 자리에 앉아 정다정을 쏘아 봤다. 정다정은 내 얼굴 표정은 보이지도 않는지, 손을 흔들며 웃어 보였다. 정다정에게 예지가 다가갔다. 예지가 도우미 역할을 설명하는 게 분명하다. 정다정은 전학 와서 뭘 모른다. 예지가 도우미를 할 때는 정말 좋았다. 예지는 완벽하다. 예쁘고, 공부도 잘하고, 친구도 많다. 예지랑 다니면 나는 진짜 예지 친구가 된 것처럼 어깨가 으쓱했다.

정다정이 식판을 자리에 올리고, 옆에 앉았다.

"에잇, 말을 해 줘야지. 몰랐잖아?"

사과는커녕 오히려 나를 나무랐다. 매주 도우미가 바뀌는데 그때마다 도우미 역할을 설명하라고? 나는 한마디 하려다가 관두었다. 어차피 도우미는 일주일짜리다.

"이 학교는 밥을 왜 이렇게 조금 줘?"

정다정을 힐끗 봤다. 정다정은 머리를 하나로 묶었는데, 제대로 묶지 않아서 앞머리 중간 중간이 사자처럼 삐죽삐죽 튀어 나와 있었다. 정다정이 연이어 물었다.

"밥 먹고 뭐 할 거야? 나는 피구 좋아하는데?"

어이가 없었다. 피구라니……. 도우미가 된 첫날은 내가 어디가 불편한지, 자기가 뭘 해야 하는지 관심 가져야 하는 거 아닌가? 정다정이랑 말하고 싶지 않았다. 나는 남은 밥을 그대로 두고 일어섰다. 잔반이 남은 식판쯤은 왼손으로도 가볍게 들 수 있다. 하지만 그런 건 도우미 일이다.

화요일, 체육시간에 체조가 끝나자 나는 계단으로 올라갔다. 오른쪽 계단 구석 다섯 번째 줄은 내가 늘 앉는 자리다. 운동장이 잘 보이는데다 그늘까지 있다. 그런데 내 자리에 서경이가 앉아 있었다. 서경이는 몸이 아파서 체육을 안 하고 쉬는 모양이었다. 서경이가 나를 보자 엉거주춤 일어서며 말했다.

"아, 깜빡했다."

나는 내 자리에 털썩 앉았다. 체육시간에 내가 늘 앉기 때문에 아이들도 '유리 자리'라고 부른다.

처음엔 선생님도 내게 '유리도 같이 하자'고 했다. 하지만 언젠가 한번 내가 체육 하다가 실수로 미끄러지자, '좀 위험하다. 그치?'라고 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가끔은 할 수 있겠다 싶은 활동도 있었지만, 나는 일어설 수 없었다. 내 엉덩이가 너무 무거워져 버렸다. 차츰차츰 나는 할 수 있는데 귀찮아서 안하는 거랑 정말 못하는 게 헷갈리게 되었다.

예지가 빨강 조끼를 입었다. 나는 예지팀을 응원하기로 마음먹었다. 예지는 날씬해서 그런지 요리조리 잘 피했다. 그런 예지에게 적수가 나타났다. 바로 정다정이었다. 정다정은 덩치가 큰데도 아주 민첩했다. 마지막엔 예지와 정다정 둘만 살아남았다. 종이 치자, 선생님은 호루라기를 불었다. 결국 경기는 무

승부로 끝났다. 정다정이 공을 높이 들어 올리며 말했다.

"아깝다. 시간만 더 있으면, 내가 이기는 건데……. 나 어땠어? 쫌 잘하지 않냐? 내가 공격만 좀 더 받쳐주면 피구 왕인데. 으하하하"

나는 대꾸 없이 걸었다.

"근데 유리 너, 왜 피구 안 해?"

쓸모없는 질문이다. 나는 공이 무섭다. 빨리 못 피하면 맞을 수도 있다. 그보다 아이들 앞에서 엉거주춤 넘어지기라도 하면 제대로 꼴불견이다. 나는 걸음을 재촉했다.

수요일 체육시간에 체조가 끝나고 내 자리로 가려는데, 정다정 목소리가 들렸다.

"선생님, 유리는요? 리본춤 출 수 있지 않아요?"

선생님이 나를 잠시 쳐다 본 후 싱긋 웃으며 말했다.

"그래, 유리도 같이 하자. 위험하지 않을 거 같은데?"

선생님 말이 끝나기 무섭게 예지가 물었다.

"팀은요? 하고 싶은 사람끼리 하는 거죠?"

아이들은 벌써 누구랑 같은 팀을 할지 바쁘게 눈빛을 교환하며 떠들고 있었다.

"당연히 모둠별로! 협동이 중요하다. 알지?"

여기저기서 한숨 소리가 들렸다. 예지에게서도.

팀별로 하는 활동에서, 나는 늘 깍두기였다. 점수가 포함되면 특히 더 그랬다. 아이들은 도우미에게, '유리랑 같이 해.', '유리 잘 도와 줘.' 라고 말했다. 나는 정다정을 쳐다봤다. 정다정이 몸을 흔들며 어깨를 으쓱했다. 왼손으로 리본 돌리기, 사실 그쯤은 자신 있다. 우리 모둠은 정다정, 예지, 소현이, 은비 그리고 나 다섯이다. 예지는 리본춤 동작을 먼저 시범 보였다. 줄 서는 것과 움직임까지 꼼꼼하게 설명했다.

"유리야, 맨 오른쪽에 서 있다가 아이들이 앞으로 나올 때 같이 나와서 리본으로 원을 그려. 최대한 크게, 알았지?"

나는 크게 고개를 끄덕였다. 기회였다. 정말 잘 하고 싶었다. 3교시는 연습하고, 4교시는 발표였다. 쉬는 시간에 아이들은 앉아서 수다를 떨거나, 아이돌 그룹 춤을 췄다. 하지만 나는 계속 연습 했다. 위에서 돌리고, 왼쪽으로 돌리고, 앞으로 나가고, 다시 왼쪽으로 돌리고…….

"리본 때문에 강풍이 분다. 살살 좀 돌려."

정다정이 내게 말했다.

"대박, 왼손 힘 엄청나다."

정다정이 부러운 듯 혼잣말을 했다.

드디어 발표다. 너무 긴장해서 오른쪽 손과 다리가 다 굳은 거 같았다. 앞에 서자, 머리까지 어질어질했다. 음악이 시작되었다. 정다정이 앞줄로 나갔다. 나도 뒤따라 나가서 옆에 섰다. 이제 원을 돌리기만 하면 된다. 크게 아주 크게. 엇! 리본이 당겨지지 않았다. 정다정 리본이랑 내 리본이 한데 엉켰다. 리본을 풀려고 잡아당기자, 더 엉켜 버렸다. 속상했다. 정말 잘하고 싶었는데. 예지한테 특히 미안했다. 예지는 나에게 역할도 쉬운 걸로 주고, 친절하게 가르쳐 주었다.

나는 예지를 따라갔다.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었다. 소현이랑 예지가 화장실로 들어갔다. 나도 따라 들어가려는데, 화장실 밖으로 소현이 목소리가 새어 나왔다.

"어휴, 정말. 이게 다 정다정 때문이야. 왜 자꾸 나서서 김유리를 끌어 들이나 몰라. 정다정 완전 재수 없어."

나는 멈칫했다. 이어서 예지 목소리가 들렸다.

"김유리는 또 어떻고? 담임 때문에 도우미 하는 것도 짜증나는데, 알아서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져야 하는 거 아냐?"

숨이 막히는 거 같았다. 입을 가렸다. 내 입에서 무슨 소리가 나올까봐 겁이 났다. 몸을 돌렸다. 빨리

자리를 피해야 했다. 나는 어기적어기적 복도를 걸었다. 정다정이 엉킨 리본을 들고 맞은편에서 걸어오고 있었다.

"혼자서 도저히 못 풀겠어. 같이 하자."

나는 못들은 척 지나쳤다.

"유리야, 한쪽만 잡아 줘. 풀수록 자꾸 엉킨단 말이야. 네가 리본을 너무 세게 돌려서 이렇게 된 거잖아!"

나는 멈춰 서서, 정다정을 쏘아봤다.

"왜 자꾸 날 걸고 넘어져? 누가 체육 같이 하겠대? 어차피 일주일 도우미야. 도우미 일이나 제대로 하라고!"

나는 엘리베이터로 갔다. 엘레비이터는 장애인과 화물용이다. 정다정은 탈 수 없다. 정다정이 엘리베이터 문 앞에 섰다.

"왜 나를 도우미라고 불러? 나는 다정이거든! 리본 줄이야 엉킬 수도 있지. 그까짓 거 가지고 뭘 그래?"

나는 엘리베이터에 타고, 닫힘 단추를 눌렀다. 그런데 장애인용이라서 닫히는데 시간이 한참 걸렸다.

"그까짓 거? 나는 정말 잘해보고 싶었다고. 네가 뭘 알아? 응? 너도 담임 때문에 일부러 잘해 주는 척 할 필요 없어."

정다정은 놀란 토끼 눈을 했다. 나는 닫힘 단추를 다시 눌렀다. 눈이 시큰시큰 아파왔다. 빨개진 눈을 정다정이 볼까봐 고개를 휙 돌렸다. 문이 닫히려고 하자, 정다정이 뭐라고 말했다. 드디어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다. 정다정 목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았다.

금요일 아침, 이번 주 도우미와는 마지막 날이다. 이제 속지 않는다. 모든 도우미는 다 똑같다. 도우미는 그저 도우미 일 뿐이다. 도우미는 친구가 아니다. 다짐에 다짐을 하고, 차돌처럼 단단한 마음을 가지고 학교에 갔다.

정다정이 의자에 요란하게 앉으며 혼잣말을 했다.

"아, 어쩌지? 미술 준비물을 안 가져왔네."

나는 못 들은 척, 사회책을 폈다.

"어휴, 선생님한테 엄청 혼날 텐데……."

사회책에 코를 박았다. 머릿속에 사회책 내용은 전혀 들어오지 않았다. 하지만 정다정과 말하고 싶지는 않았다.

"아참, 면봉이 한통이나 있고, 물감세트도 있는 짝꿍과 같이 쓰면 참 좋을 텐데……. 이름이 놀부였나 유리였나?"

나는 얼굴을 가린 채 낄낄거리고 말았다.

"탱큐!"

정다정도 혀를 날름 내밀고는 웃어 보였다.

미술 시간은 모둠별로 협동화 그리기였다. 어디선가 한숨 섞인 '또?' 소리가 들렸다. 명화작품을 따라 그리고 면봉으로 물감을 찍어서 작품을 완성하는 거였다. 시 미술대회에서 금상까지 받은 예지가 '이삭 줍는 여인들'을 그리고, 그림을 네 등분했다. 나는 책상서랍에 있는 면봉만 만지작거렸다. 왼손으로 하면 된다. 자신 있다. 내 왼손은 태어나면서부터 양손이 할 일을 익혀 왔다.

예지가 선생님처럼 못 박듯 말했다.

"정다정, 유리 잘 도와줘. 알았지?"

정다정이 고개를 갸우뚱하더니, 명화 한가운데에 동그라미를 그렸다.

"요렇게 하면, 다섯 개 딱 맞잖아? 나는 요거, 이게 제일 쉽지롱!"

정다정은 오른쪽 아래 조각을 가리키며 말했다. 예지랑 다른 아이들은 놀란 얼굴로 서로를 바라봤다. 정다정이 아이들 눈길은 개의치 않고 물었다.

"유리 넌?"

나는 책상 서랍 안에 있는 면봉과 물감세트를 꺼내 책상 위에 올렸다. 아이들은 제일 쉬운 조각만 남겨 두었다. 이번만큼은 정말 잘 해보고 싶었다. 그런데 종이를 오른손으로 잡으면 자꾸 비뚤어졌다. 그렇다고 왼손으로 종이를 잡은 채, 면봉으로 물감을 찍을 수는 없었다. 정다정을 불렀다. 정다정은 하품을 하며, 눈을 비볐다.

"왜? 졸려?"

어떻게 이 상황에서 잠이 올까? 나는 내 명화작품 조각을 가리키며 말했다.

"자꾸 흔들려. 이거 좀……."

"오케이! 진즉에 말을 하지."

정다정이 벌떡 일어섰다. 그리고는 내가 작업하는 종이를 양손으로 꽉 붙잡았다. 나는 풉 웃고 말았다. 정다정이 그런 나를 물끄러미 쳐다봤다.

"그냥 테이프로 네 귀퉁이만 붙이면 되잖아."

내 말에 정다정이 머리를 긁적였다. 정다정 머리카락에 노란 물감이 묻었다.

"머리염색 했냐? 물감."

정다정은 물감 묻는 손으로 머리카락을 만졌다. 그럴수록 머리에 물감이 묻어서 지저분해졌다.

"어휴, 이리 대 봐."

나는 하는 수 없이 정다정 머리카락에 묻은 물감을 닦아 주었다.

"내 참, 정말 최악의 도우미다."

나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정다정이 배시시 웃으며 말끝을 길게 늘어뜨려 올리며 말했다.

"나는 정 많고 엄청 다정해서, 이름이 정다정이거든요?"

우리 모둠의 협동화가 완성되었다. 다섯 조각을 이어 붙이자, 나름 그럴듯했다. 하나만 빼고. 예지가 정다정에게 소리쳤다.

"정다정, 이게 뭐야? 잘 좀 하지!"

예지도 내가 한 걸 보고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면봉으로 꽉 차게 물감을 찍어야 하는데, 정다정이 한 건 허옇게 빈 곳이 많았다.

"쳇, 맨날 지만 잘났대."

정다정은 입을 삐죽거리며 구시렁거렸다. 나는 속으로 크크 웃었다.

또 월요일이다. 새로운 도우미가 내 앞 줄에 섰다. 수다 떠는 아이, 노래를 흥얼거리는 아이, 팔짱을 끼고 서 있는 아이까지 모양도 제각각이었다. 나는 식당 안쪽에 붙어 있는 급식 포스터를 하릴없이 쳐다봤다. 왁자지껄 시끄러운 소리 속에 정다정 목소리도 섞여 있었다.

"우와, 오늘 메뉴 치킨이다. 오 마이 치킨!"

나도 모르게 소리 나는 쪽으로 얼굴을 돌렸다. 정다정이랑 눈이 마주쳤다. 나는 못 본 척 얼른 고개를 돌렸다.

"유리야, 너 완전 치사하다."

정다정이 어느새 내 옆에 와서 서 있었다. 도우미가 아닌데 내게 말을 걸었다.

"이제 짝 아니라고 아는 척도 안 하냐? 그나저나 너 말이야. 치킨 싫어하면 이 언니한테 넘겨도 돼."

정다정이 눈을 찡긋하며 나직이 말했다. 그건 보통 친구들이 주고받는 대화였다.

"나, 나도 치킨 좋아한다. 뭐."

이상하게 목이 쉰 것처럼 말이 잘 나오지 않았다. 정다정이 갑자기 내 손을 잡으려고 했다. 나는 화들짝 놀라서 몸을 뒤로 뺐다. 정다정이 중심을 잃고 넘어지려했다. 나는 재빨리 왼손을 내밀어 정다정을 붙잡았다. 결국 우린 서로를 마주잡고 서 있었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크크 웃었다.

정다정이 내 왼손을 들고 물었다.

"점심 먹고, 피구 한 판 어때?"

"피구? 말도 안 돼."

나는 고개를 세차게 흔들었다.

"야, 왼손 힘이 이렇게 센대? 너 피구 진짜 잘 할 거야. 내가 장담해!"

정다정이 내 왼손을 단단히 붙잡았다. 그런가? 어쩌면 피구를 잘 할지도 모른다. 내 왼손은 무척 세니까. 아빠하고 붙어도 팔씨름은 늘 내가 이기니까. 아니다. 아이들은 나를 안 맞출 거다. 우리 팀이 이기면 나를 맞출 수가 없어서 이겼다고 할 거다. 우리 팀이 지면, 나 때문이 졌다고 할 게 뻔하다. 그보다 아이들 앞에서 엉거주춤한 자세로 넘어지거나 우스꽝스런 몸동작을 보이는 게 싫다.

"싫어, 절대 안 돼!"

정다정은 애원하듯 말했다.

"도와줘. 내가 살짝 슛팅만 약하잖아. 그냥 내 옆에서 공만 좀 던져 주라. 응? 제발 부탁이야. 혹시 공에 맞을까봐 그래? 걱정 마. 내가 다 막아 줄게. 엉?"

그래. 딱 공만 던지는 거라면, 게다가 정다정이 내게 날아오는 공을 다 막아 준다면…….

점심 먹고, 계단을 내려갔다. 계단을 한 칸씩 내려갈 때마다 나를 힐끗힐끗 쳐다보는 눈들이 많아졌다. 다리에 힘이 너무 들어가서 뻣뻣해진 거 같았다. 당황해서 넘어지기라도 할까봐 겁이 났다.

운동장에 섰다. 흙먼지 바람이 불었다. 늘 내가 앉던 자리는 비어 있었다. 지금이라도 올라가서 다리를 쭉 펴고 쉬고 싶었다. 왜 또 다정이 꼬임에 넘어 갔을까? 공에 맞아서 우스꽝스런 모양으로 넘어지기라도 하면 정말 대참사다.

"정다정, 너 뭐야? 왜 또 유리를 데려왔어? 설마 피구라도 하겠다는 건 아니지?"

예지 말이 내 가슴을 쿡 눌렀다.

"응, 맞아. 유리도 피구 할 거야."

다정이가 나를 보며, 자신만만하게 대답했다. 예지가 팔짱을 낀 채 물었다.

"말이 되는 소리를 해! 유리를 어떻게 맞춰?"

가슴이 콕콕 쑤셨다. 다정이가 나를 보며 예지에게 대꾸했다.

"걱정 마. 공은 내가 다 받을 거야. 유리는 공격 전문! 안 그래?"

그때 우리 쪽으로 공이 날아 왔다. 무서워서 나도 모르게 눈을 질끈 감았다. 눈을 뜨니 다정이가 탁 경쾌한 소리를 내며 공을 잡고 있었다.

"앗싸, 마이 볼!"

유리가 내게 공을 건네며 주먹을 쥔 채 말했다.

"자, 황금 손의 실력을 보여 주시지요!"

공을 받아 들었다. 손끝이 찌릿하기도 하고, 간질간질하기도 했다. 공을 던졌다. 공이 앞으로 힘차게 날아갔다. 다정이는 하이파이브를 하자며 한손을 번쩍 들었다. 환하게 빛나는 얼굴로. 어쩌면 다정이는 유통기한 친구가 아닌지도 모른다.